

June 2026
No. 394

INSS

전략보고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과 한국의 대응 과제

김경숙
kgs07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과 트럼프 2기 핵심광물 목록
- III.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기조와 국내 확보 전략
- IV. 트럼프 2기 미국의 진화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 V.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과 한국의 대응 과제

I. 문제 제기

II.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과 트럼프 2기 핵심광물 목록

1. 핵심광물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전략적 중요성
2. 2025년 핵심광물 목록 확대와 그 의미

III.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기조와 국내 확보 전략

1.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2. '탈중국' 전략과 경제안보 기조 강화
3. 미국 내 확보 전략 : 새로운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Project Vault')

IV. 트럼프 2기 미국의 진화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1. 양자·소다자 협력
2. 다자협력 :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V.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1. 시사점
2. 한국의 대응 과제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과 한국의 대응 과제

저자 | 김경숙

국문 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차질에 맞서 핵심광물의 탈중국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수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미국 내 자립 및 인프라 구축(Project Vault), 양자 협력 차별화와 거대 다자 협의체(FORGE) 가동을 3축으로 규제 폐지, 강력한 통상 장벽, 다자간 무역 블록 형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핵심광물 목록을 5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 수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위한 장기적·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인 'Project Vault'는 1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합동 산업 안정화 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에 대응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우선 매입하고, 최소 60일치 이상 상시 비축, 우려 국가에서 유입되는 광물 및 파생 제품(PCMDPs)에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가격 하한제로 미국 내 자원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기능을 수행한다. 트럼프 2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은 동맹과의 양자 협력에서는 '거래주의'를 강화하고, 소다자 협력에서는 9 개국과 첨단 기술·자원 동맹인 팩스 실리카(Pax Silica)를 형성하고, 거대 다자 협의체인 'FORGE'를 통해서도 '우대 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가격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시장 안전장치 도입(가격 하한선)·오프테이크 계약·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광산 및 정제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필수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블록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력, 지속성,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며 공정한 거버넌스는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국가는 미국의 주도권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시장의 효율성보다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경쟁의 축이 '원광'에서 '정·제련(Processing)'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정치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공급망의 블록화는 한국에도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공급망 경쟁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기술과 규범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수요 패키지'를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로서 '한국형 광물안보파트너십(K-MS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내 자립 및 공급망 다변화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실시에 발맞추어 자원안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자원화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해야 한다. 셋째, 한미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정례화하여 미국 내 정제·가공 인프라 공동 투자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다자 협의체 FORGE의 초대 의장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에 유리한 공급망 규칙이 반영되도록 초기 주도권 확보와 룰 세팅(Rule-setting)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주제어: 트럼프 2기,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Project Vault'),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우대 무역지대 (Preferential Trade Zone), 시장 조성자 (Market Maker), 자원 무기화, '한국형 광물안보파트너십 (K-MSP)'

I 문제 제기

- 미중 전략경쟁이 안보·기술·경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차질에 맞서 핵심광물의 탈중국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수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 중국은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 다수 광물의 정제·가공 전반을 장악하며 기술 자립과 대외 지배력 강화를 위해 상호주의와 사용 용도 중심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공급망을 무기화¹
 - ※ 2025년 10월 30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부 대중 고율 관세 조치 완화,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1년간 중지하기로 합의²
 - 미국은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독점 및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기반 분산(Friend-shoring)'에서 '미국 중심의 압도적 자급체계 구축(America First Supply Chain)'으로 전환³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핵심광물의 미국 내 자립 및 인프라 구축(Project Vault), 양자 협력 차별화와 거대 다자 협의회(FORGE) 가동이라는 3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와 미국 주도의 자원 경쟁 주도
 -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광물 목록을 확대(50 → 60종)하고 핵심광물 공동 비축·투자, 전주기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주주의 공급망 블록 형성
 - 2026년 2월 미국 주도로 50여 개국이 참여한 '핵심광물 장관회의'에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을 선언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자립적 공급망 구축을 지향⁵

1 김경숙,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692호 (2025. 5.26) 참조.

2 김경숙·홍건식, “미국-일본-호주 3각 핵심광물 협력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770호 (2025.12.8.) 참조

3 U.S. Embassy Malaysia,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February 4, 2026, <https://my.usembassy.gov/2026-critical-minerals-ministerial/>(accessed: May 2, 2026)

4 김원철, “미국 주도 ‘핵심광물 무역블록’ 시동…중국 저가 공세 차단,” 『한계레신문』, 2026년 2월 5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3400.html>(검색일: 2026년 2월 6일)

5 USTR, European Commission - United States of America - Japan, Joint Press Statement, February 4, 202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Joint%20Press%20Statement%20-%20204%20February%202026.pdf>: (accessed: May 2, 2026)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한계 극복 및 중국의 시장 지배력 대응을 위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FORGE, Framework for Resilient, Global, and Equitable Trade)’으로 전환
-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자립적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거대 블록을 형성한 만큼 미국 주도의 자원 경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
 - ※ FORGE는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전 세계 55개 파트너(54개국 + EU)가 참여하며, 한국은 의장국 수입(2026년 6월까지)
- 자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구축이 한국에 미칠 영향(기회/도전 요인)과 한국의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민과 설계 필요

II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과 트럼프 2기 핵심광물 목록

1. 핵심광물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전략적 중요성

■ 미국의 핵심광물 정의와 범위

- 미국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을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 위험이 크고, 제조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비연료 광물(Non-fuel)'로 규정

※ 한국과 미국은 핵심광물, EU 핵심원자재, 일본 희소금속 등 국가별로 핵심광물 명칭이 다르며,⁶ 한국은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포함해 33종, 미국은 60종, EU는 34종 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 첨단 기술 및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산업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자원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할 때 미국의 경제적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초래

※ 미 내무부(DOI) 산하 지질조사국(USGS)에 연방 차원의 핵심광물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소 3년마다 갱신하도록 지정 권한을 위임

-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은 가공 물질로 핵심광물 범위를 확대⁷

- 기존 채굴 단계의 광물을 넘어 가공 소재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핵심 물질(Critical Materials)' 개념 도입

- 미 에너지부(DOE)에 제출된 원광뿐만 아니라 정·제련된 금속, 화합물, 정제 제품까지 포함하는 '핵심 물질'을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 여기에는 USGS의 50대 핵심광물 외에도 이들을 정련·가공한 엔지니어링 소재와 알루미늄, 구리 같은 기반 금속의 특정 공급망까지 포함해 관리 밀도가 매우 높은 편

■ 경제·안보·외교를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

- 트럼프 행정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광물을 첨단산업 소재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기술 혁신과 경제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및 핵심 자원으로 인식

- 전기차, 배터리,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미래 산업의 기반 자원이자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등 미국의 국방력과 무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방산 물자

- AI 데이터 센터 등 제조업 생태계 구축에 구리, 알루미늄, 흑연 등의 원자재 독립은 '미국 제조업 부흥'의 선결 조건

6 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

7 2021H.R.3684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117th Congress(2021-2022).

- 미국은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 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공급망 집중으로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 위험이 커 미국 경제·안보에 최고수준의 위험 요인으로 평가
- 현대 생활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요도 급증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 구리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송전 인프라, 군용 항공기, 방위 시스템 등 현대 기술 전반에 필수적이며 병원 인프라(깨끗한 물, 냉매, 의료용 가스)에도 중요한 역할
 - AI,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사용 등 기술 확대로 인해 향후 15년간 전 세계 구리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구리 가공을 지배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구리 공급이 중요⁸
 - ※ 미 하원 에너지 및 광물자원 소위원회 의장 피트 스타우버 의원(공화·미네소타)은 구리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감독 청문회에서 구리가 현대 생활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⁹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중국 공급망 권력의 원천적 억제를 추구
 - 중국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¹⁰와 핵심광물 정제·가공 능력의 최대 90%를 통제하며, 일부 희토류(내열 자석용 3종)에서는 99% 이상을 독점¹¹하는 등 정제·가공 단계의 병목을 장악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
 - 미중 AI 경쟁에서 중국은 희토류·그래파이트·텅스텐 등 핵심광물과 자석·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¹²해 미국 제조업과 국가 방위력을 위협

8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Powering the 21st Century with American Copper, Press Release, April 29,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28>(accessed: May 6, 2026)

9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Powering the 21st Century with American Copper, Press Release, April 29,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28>(accessed: May 6, 2026)

10 희토류는 주기율표에 있는 화학 원소군(란타나이드와 이트륨)으로, 특정 광물 매장지에서 함께 발견되며, 배터리, 촉매, 자석, 세라믹, 유리, 야금 등 다양한 기술에 사용. U.S. Geological Survey, About the 2025 List of Critical Minerals, November 6, 2025, <https://www.usgs.gov/programs/mineral-resources-program/science/about-2025-list-critical-minerals#FAQ>(accessed: May 6, 2026)

11 Michael From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a Critical Chokepoint on Minerals," CFR, October 17, 2025, <https://www.cfr.org/articles/china-united-states-and-critical-chokepoint-minerals>(accessed: May 7, 2026)

12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I Race, CFR, 2025(accessed: May 1, 2026)

2. 2025년 핵심광물 목록 확대와 그 의미

■ 미국의 2025년 핵심광물 목록 확대

- 2025년 8월 미국 내무부 산하 지질조사국(USGS)은 에너지법(2020)에 따라 핵심광물 목록 개편안을 발표(2025.8.25)¹³하였으며, 2025년 핵심광물 목록을 총 60종(신규 10종 추가)으로 확정(2025.11.6.)¹⁴
 - 이번 목록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EO 13817)과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 제도적 절차의 일환
 - ※ 2025년 중요 광물 목록은 공급, 수요, 생산 집중 현황 및 현재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최소 2년마다 업데이트될 예정
 - 지질조사국(USGS)은 기존 2022년 목록(50종)에 구리·실리콘·칼륨·은 등 10종을 추가하여 총 60종(희토류 15종 포함)으로 확대¹⁵
 - ※ 규소는 반도체·태양광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며 농업·식량 안보와 직결된 칼륨은 주요 공급국 캐나다와의 무역 장벽 위험 가능성, 레늄은 고온 합금·항공우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
 - 희토류는 여전히 가장 높은 공급망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스마트폰·하드디스크·첨단 방위산업에 필수적
- 또한, 미국은 채굴 단계의 광물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가공 물질 및 정제 제품까지 범위를 넓혀 '핵심 물질'로 별도 관리
- 미국의 2025년 핵심광물 목록은 중국 의존 탈피,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

13 김나윤, “美, 핵심광물 목록에 구리·칼륨·실리콘 등 추가,” The GURU, 2025년 8월 26일,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90972>; 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94&utm_ (accessed: May 6, 2026)

14 U.S. Geological Survey, published the final 2025 List of Critical Minerals, November 14, 2025, <https://www.usgs.gov/news/science-snippet/interior-department-releases-final-2025-list-critical-minerals>(accessed: May 6, 2026)

15 U.S. Geological Survey, About the 2025 List of Critical Minerals, November 6, 2025, <https://www.usgs.gov/programs/mineral-resources-program/science/about-2025-list-critical-minerals#FAQ>(accessed: May 6, 2026)

■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 수준 3단계

- 지질조사국은 처음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 수준을 △고위험(high) △상승(elevated) △보통(moderate)의 3단계로 구분하고,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 개념으로 강조¹⁶

※ 이번 평가에는 84개 광물 품목, 402개 사업, 1200개 이상의 공급망 차질 시나리오를 분석해 경제적 충격 가능성을 평가

- 새로운 분류 방식은 미국 경제·국가안보에 필수적이거나 공급국의 무역 장벽 위험 가능성과 공급 차질 시 경제적 충격, 국내 투자·국제 무역 관계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로듐,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나يو븀, 마그네슘 금속, 칼륨과 희토류(사마륨, 루테튬, 테르븀,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이트륨) 등이 최고 위험군으로 평가

- 특히, 미국은 핵심광물 지정 시 단순히 적대국 의존 여부가 아니라, 공급망 집중도와 무역 장벽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맹국 자원도 과도한 의존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

- 미국이 칼륨을 핵심광물 목록에 추가한 이유 역시 캐나다 단일 공급 의존으로 인한 무역 장벽 위험과 식량 안보 차원의 리스크 관리 때문

- 2025년 8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반가공 구리 제품에 50% 관세와 국내 판매 의무를 포함한 새로운 구리 정책을 발표¹⁷

- 미국은 구리 원광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제련·정제(midstream) 능력 부족이 핵심 취약점

16 U.S. Geological Survey, About the 2025 List of Critical Minerals, November 6, 2025, <https://www.usgs.gov/programs/mineral-resources-program/science/about-2025-list-critical-minerals#FAQ>(accessed: May 6, 2026)

17 Alexis Harmon and Reed Blakemore, “A tale of two supply chains: Comparing Trump’s new copper tariffs and rare earth investments,” Atlantic Council, August 5,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ale-of-two-supply-chains-comparing-trumps-new-copper-tariffs-and-rare-earth-investments/>(accessed: May 10, 2026)

III 트럼프 2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기조와 국내 확보 전략

1.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 트럼프 2기는 1기의 미국 생산 의지와 바이든 시기의 동맹 협력 모델을 흡수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규제 폐지, 강력한 통상 장벽, 다자간 무역 블록 형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표 1>참조)¹⁸
 - 트럼프 1기는 관세와 규제 완화 중심, 공급망 블록화는 제한적
 - 바이든 시기는 기후·청정에너지 중심, IRA·반도체법(CHIPS Act)에 기반해 동맹 협력 강화
 - 트럼프 2기는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우선시하며, “미국 우선주의 가치(America First values)에 기반한 공급망 다변화 및 미국 주도의 자원 경쟁 주도”를 공식 명시¹⁹
-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 정책과 결합한 새로운 무역 블록 구상으로 강력한 ‘자원 지배력(Mineral Dominance)’ 확보를 목표로 설정²⁰
 - 환경 규제보다 국내 채굴·정제·비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블록화, 해외 자원 확보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는 자립과 협력을 강조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다자적·규범 중심 접근법에서 벗어나,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시장 교란 행위(가격 덤핑 등)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시장 통제와 금융·안보적 동맹 체계 구축에 집중
 - 새로운 무역 블록은 미국이 가격 하한선 설정을 포함해 직접 가격과 유통을 통제하는 시장 재설계,²¹ 미 연방 토지 내 광물 채굴 전면 허용, 중국산 가공 광물의 시장 배제를 위한 원산지 규정 등 강화

18 SunSirs, 트럼프의 핵심광물 2. 0 전략의 첫 해에 대한 리뷰, February 24, 2026, https://www.sunsirs.com/kr/detail_news-30721.html(accessed: May 17, 2026)

19 2026 핵심광물 장관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공동성명 (2026년 2월 4일)

20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House Votes to Establish American Mineral Dominance, February 4, 2026(<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589>)(accessed: May 6, 2026)

21 Michael From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a Critical Chokepoint on Minerals,” CFR, October 17, 2025, <https://www.cfr.org/articles/china-united-states-and-critical-chokepoint-minerals>(accessed: May 7, 2026)

〈표 1〉 트럼프 1, 2기와 바이든 시기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구분	트럼프 1기 (2017~2021)	바이든 시기 (2021~2025)	트럼프 2기 (2025~현재)
핵심 기준	미국 우선주의 및 안보 위협 규정 자원 민족주의, 관세 중심	동맹국 다자 협력 및 친환경 공급망	경제안보·국방 연계, 공급망 블록화 제도화 자원 지배력(Dominance) 및 무역 통제
타깃 광물	국가 안보용 희토류 원광	배터리·재생에너지 핵심광 물(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목록 확대(60종),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PCMDPs)
주요 수단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규제 완화 핵심광물 국가안보 자원 지정, 채굴 규제 완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IRA 세액공제	관세 위협을 통한 협상, 대규모 금융 비축 EO 14154·14241·14272를 법제화하여 지속적 적용, 국내 채굴·정제·가공 확대
공급망 전략	중국 의존 축소 강조, 블록화 미약	동맹 협력 강화, ESG 규범 반영	중국 배제형 공급망 블록화, 공공 토지 채굴 허용, 인허가 신속화, 비축 확대, 자원 외교·재활용 투자 확대
외교·협력	양자 협정 제한적	다자 협력(EU·일본·한국 등), 공동 프로젝트	아프리카·남미 자원 외교 확대, 동맹국 정렬 압박
안보적 의미	군사력과 연계는 제한적	청정에너지·기후 중심, 안보적 색채는 약함	국방·항공우주·에너지·제조업 기반 안정 화, 중국 의존 탈피를 국가안보 과제로 명시

출처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참조해 작성

2. ‘탈중국’ 전략과 경제안보 기초 강화

■ 국가안보·경제안보 강화

- 트럼프 2기의 미국은 핵심광물 확보를 국가안보 전략으로 격상, 미국 우선주의 가치(America First values)에 기반한 ‘자원 자립’과 ‘동맹 기반의 경제안보’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표 2〉 참조)
 - 미국은 세계 2위의 희토류 채굴국이나 가공(Processing)은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발트·니켈·희토류 등 12개 핵심광물 100%와 29개의 핵심광물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²²
 -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PCMDPs,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역시 해외 의존 심화로 국가안보에 위협은 물론 가격 왜곡과 수출제한, 공급망 충격 등에 취약²³

22 신다윗, “경제안보와 국방(III):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과 안보적 시사점,” KIDA 안보전략 포커스, 제26-15호 (2026년 2월 11일)

23 STR Trade Report. (n.d.). Section 232 investigation: Critical minerals

- 반도체·배터리·군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내 자급 체제로 전환하고 국방·항공우주·에너지·제조업 등 전략산업 기반을 안정화할 필요성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NEDC)를 신설하고 핵심광물 행동 계획 발표(2025년 2월)

※ 백악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213 및 Executive Order 14241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와 미국 중심의 광물 자급률 내재화”를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발표²⁴

〈표 2〉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과 미국의 대응 전략

구분	중국 지배력	미국 대응 전략
핵심 역량	세계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정제·가공 능력의 최대 90% 통제, 일부 희토류는 99% 이상 독점	가격 하한선·오프테이크 계약·세제 혜택·규제 완화로 장기 투자 유도
전략 방식	산업 정책·보조금·가격 전략으로 경쟁국 경제성 무너뜨림	국방부·재무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 및 계약 체결 (예: MP Materials 지분 투자)
공급망 영향	글로벌 공급망 병목을 장악, 지적재산권(IP)과 기술 역량 확보	DFC·Ex-Im 은행 활용, 동맹국과 공동 투자·비축 추진
국제 협력	중국 중심 공급망 블록 형성	아프리카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 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장기적 의미	중국 의존 심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협력적 공급망 블록 구축,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기반 마련

출처 : 미국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NEDC) 행정명령, 2026 핵심광물 장관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공동성명, FORGE 출범 선언문 등을 참조해 작성

■ 장기적·제도적 안정성을 위한 법제화

- 트럼프 2기 미국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국내 광물 자원 개발과 공급망 자립을 위한 장기적·제도적 안정성 확보

- 공공 토지에서의 채굴 허용 확대, 기존 광산 인허가 신속화(FAST-41 프로그램), 지질 조사 강화 및 미국 대륙붕 및 공해 구역(태평양 CCZ 등) 내 독자적인 심해 채굴을 가속화

※ 'FAST-41' 지정 20개 광산 프로젝트에 광산 개발 핵심 인허가 프로세스를 최대 28일로 단축하고,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해방' 행정명령(2025.4)을 통해 해양 자원 개발을 가속화

24 Executive Order 14213—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February 14, 2025,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executive-order-14213-establishing-the-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accessed: May 7, 2026)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총 95억 달러의 국방 및 안보 예산과 연계한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²⁵
 -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원되는 75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국방 수급을 위한 국립국방 비축물자(NDS)에 즉각 투입, 50억 달러는 국방부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에 직접 배정
- 내무부가 규제 완화법 개정 권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미국 의회는 중국 의존 탈피와 국내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한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국방 연계형 자원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광물 관련 행정명령(EO)들을 법제화해 미국 내 채굴·정제·가공을 제도적으로 지원
- 핵심광물 지배법(Critical Mineral Dominance Act) (H.R. 4090)²⁶
 - ※ 미국 하원은 EO 14154 (Unleashing American Energy), EO 14241 (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Mineral Production), EO 14272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들을 법제화
 - 연방 공공 토지에서의 광물 시추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환경 규제로 묶여 있던 국내 채굴 허가(Permitting) 절차를 축소하고 지질 조사를 확대하여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제 조성
 - 향후 상원 통과 시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은 국내 채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영구자석 안보법 (Rare Earth Magnet Security Act): 방산 및 첨단 제조업의 필수 부품인 네오디뮴(Nd) 등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Decoupling)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
- ‘광물 자원 발굴(Unleash Mineral Resources)’법²⁷
 -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채굴을 제한(PLO 7917)한 미네소타 지역의 핵심광물 개발 권한을 다시 복원

25 One Big Beautiful Bill Act, PUBLIC LAW No. 119-21, JULY 4, 2025,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accessed: May 10, 2026).

26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House Votes to Establish American Mineral Dominance, Press Release, February 4,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589>(accessed: May 7, 2026)

27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Senate Passes Legislation to Unleash Mineral Resources, April 16,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11>(accessed: May 7, 2026)

-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2026.1.21.)된 H.J. Res. 140을 승인(4.16)²⁸
- 미네소타 광산채굴 금지 철회는 미국이 중국 의존 탈피와 미국 내 핵심광물 자급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²⁹
- ※ 미네소타 북부 지역은 구리·니켈 등 거의 80억 톤에 달하는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는 세계적 수준의 광물 매장지로 개발된다면 니켈 매장량의 95%, 코발트 매장량의 88%, 구리 매장량의 3분의 1과 미국 백금군 자원의 75%를 차지
- 미국은 구리를 21세기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추진
 - 하원 공화당은 허가 제도 개혁, 관료주의 축소, 국내 조달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
 - 미 하원 에너지 및 광물자원 소위원회는 청문회에서 국내 광산·가공 강화, 허가 절차 개선, 혁신 진전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을 강조

3. 미국 내 확보 전략 : 새로운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Project Vault')³⁰

■ 미국 내 채굴·정제 활성화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

- 현재 중국은 글로벌 핵심광물 생산의 60%, 가공의 90%, 제조의 75%를 통제³¹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고관세와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해 희토류·배터리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
- 미국은 이를 '경제·안보적 취약성'으로 규정하고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체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탈중국화를 추진(〈표 2〉 참조)
 - ※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이 공급망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³²

28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Senate Passes Legislation to Unleash Mineral Resources, April 16,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11>(accessed: May 7, 2026)

29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President Trump Signs Legislation to Overturn Minnesota Mining Ban, Press Release, April 28,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26>(accessed: May 7, 2026)

30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 Approves Project Vault Loan to Launch America's Strategic Critical Minerals Reserve and Support Manufacturing Jobs, February 2, 2026; <https://www.exim.gov/news/project-vault>(accessed: May 7, 2026)

31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House Votes to Establish American Mineral Dominance, Press Release, February 4,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589>(accessed: May 7, 2026)

32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Senate Passes Legislation to Unleash Mineral Resources, April 16,

- 중국이 희토류·배터리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 중요 광물 채굴 및 생산 확대를 포함해 산업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
- 환경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고속 고속도로(Fast-track) 구축
 - 국가환경정책법(NEPA)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평균 20~30년씩 걸리던 미국 내 신규 광산 개발 및 정련 시설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연방 토지 및 국립공원 내 광물 탐사 제한도 대거 해제
- 전시 권한 및 행정명령 동원
 - 1950년대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미국 내 희토류 채굴, 리튬 가공 시설에 정부가 직접 대출 및 금융 투자를 지원하며 공급망 개입을 극대화
- 관리 품목 확대
 - 기술 패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희토류 중심에서 구리, 우라늄, 포타슘 등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자원까지 핵심광물 범위를 넓혀 집중 관리
-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장벽과 가격 하한제
 -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관세 장벽과 가격 하한제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PCMDPs)’을 안보 의제로 격상하는 핵심광물 포고문(Section 232 Proclamation)에 서명(2026.1.14.)
 - ※ 포고문은 미국이 코발트·니켈·희토류 등 일부 광물에 대한 채굴 역량을 보유하더라도 국내 가공(Processing) 역량이 부족하면 가공 단계에서 수입의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
 - 이를 근거로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유입되는 광물 및 파생 제품에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 적용³³과 가격 하한제로 미국 내 자원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호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11>(accessed: May 7, 2026)

33 Ernest Scheyder and Kanishka Singh, “Trump says no critical minerals tariffs for now, will seek overseas supplies,” Reuters. January 15,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says-no-critical-minerals-tariffs-now-will-look-overseas-supplies-2026-01-14/> (accessed: May 7, 2026)

■ 민관 합동 국가 전략 비축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 프로젝트 볼트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국가 비축전략으로 과거의 전략비축유(STR)와 유사한 민관 합동 산업 안정화 프로젝트
 - 미국 내 핵심광물 비축(reserve)·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지정한 핵심광물 전부를 비축 대상에 포함³⁴해 전략적 완충 장치 마련
 - ※ 첨단 산업 및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최소 60일치 이상 상시 비축하여 중국의 자원 무기화 보복에 대응
 - 정부가 직접 광물을 매입·비축하는 방식으로 GM, 보잉 등 미국 핵심 제조 기업과 협력해 비축 기지로 구축하고 채굴·정제·재활용 프로젝트를 금융지원·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첫 공공-민간 파트너십
 - ※ 미국 수출입은행(EXIM)은 1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 민간 자본 약 20억 달러 등 120억 달러 규모의 광물 비축 및 금융지원 확보
 - EXIM은 최근 1년간 148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지원(리튬, 코발트, 니켈, 주석 등), DOE는 리튬-그래파이트·희토류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대출 및 조건부 지원 제공
 - ※ 단기적으로 가장 취약한 15개 희토류 원소,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갈륨 등을 우선 매입
- 프로젝트 볼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자급자족 생태계 완성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단계적 공급망 재편 전략³⁵
 - 1단계는 민관 합동 자원 마련 및 비축 체계 구축, 2단계 민간 수요 연계 및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가동, 3단계 채굴·조달처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중기 전략), 4단계 정제·가공 및 자석 제조 인프라의 ‘내수화’(최종 장기 전략)
 - 단계별 국가 비축 프로젝트는 ① 신규 광산 탐사·정제 능력 강화, ② 연방정부 비축제도 확대, ③ 민간 투자 촉진, ④ ESG형 공급망 구축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전개

34 Pippa Stevens, Spencer Kimball, “Trump Project Vault stockpile will include any minerals listed as ‘critical’ by Interior Department,” CNBC, February 3, 2026; <https://www.cnn.com/2026/02/03/trump-stockpile-critical-minerals-reserve-project-vault.html>(accessed: May 7, 2026)

35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 Approves Project Vault Loan to Launch America’s Strategic Critical Minerals Reserve and Support Manufacturing Jobs, February 2, 2026; <https://www.exim.gov/news/project-vault>(accessed: May 7, 2026)

- 프로젝트 볼트는 단순 비축을 넘어 가격 하락 시 물량을 매입하여 서방 광산 기업들의 채산성을 보장해 주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기능 수행
 -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 왜곡에 대응해 시장 교란 기준(가격 폭등, 공급 중단 등)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비축 물량이 시장에 방출되도록 설계해 시장 가격을 안정
- 미 국방부는 미국 희토류 기업 MP Materials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체결(2025.7.10.)해 장기 수요를 보장³⁶
 - 국방부와 MP Materials 협력은 희토류 분리·자석 생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의 핵심 병목을 직접 겨냥해 국내 생산 확대 추진
 - 10년간 자석 구매 계약, 가격 하한제(\$110/kg NdPr), 대출·지분투자 등 시장 형성형 개입을 통해 민간 투자 리스크 완화
 - 다만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경쟁 약화·시장 왜곡 우려 존재
- 또한, 미국은 자원개발·가공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자원화를 통해 핵심광물 순환모델 구축에도 집중 투자
 - 폐배터리 등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Recycling) 산업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
 - ※ 폐 NdFeB 자석 등에서 희토류 회수 기술개발, 친환경 건식 추출 신공정 도입으로 고순도 금속 회수율 제고

36 Alexis Harmon and Reed Blakemore, “A tale of two supply chains: Comparing Trump’s new copper tariffs and rare earth investments,” Atlantic Council, August 5,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ale-of-two-supply-chains-comparing-trumps-new-copper-tariffs-and-rare-earth-investments/>(accessed: May 7, 2026)

IV 트럼프 2기 미국의 진화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1. 양자·소다자 협력

-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통제에 대응해 동맹국과 자원·기술·투자를 위한 협력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을 추진
 - 미국은 자국산 장비·기술을 도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만 선별적으로 양자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주의적 양자주의’를 강화
 - 호주·일본과의 공급망 안정 협정(정제·가공 역량 강화), 캐나다·EU와의 광물안보 파트너십(비축 가격 메커니즘), ASEAN 국가(말레이시아·태국)와의 투자·규제 협력 MOU 체결,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연계³⁷
 - 협정 내용은 공통적으로 △공동 비축 △투자·금융 지원 △환경·노동 기준 공유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
- 또한, 반도체 소재인 실리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망의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는 9개국 중심의 첨단 기술·자원 동맹 팩스 실리카 (Pax Silica)를 형성³⁸
 - 채굴부터 고순도 가공, 전략 비축까지 동맹 내에서 완결하는 공급망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

2. 다자협력 :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 FORGE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트럼프식으로 개편한 다자간 협력체이자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
 - 2026년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번째 핵심광물 장관회의(2.4)에서 미국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을 발표³⁹

37 백악관 홈페이지 Briefings & Statements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accessed: April 27, 2026).

38 The U.S. Department of State, What is Pax Silica, <https://www.state.gov/Pax-silica>(accessed: May 4, 2026); Pax Silica Forum, PAX SILICA - An Initiative to Secure Supply Chains for the AI Era: <https://paxsilica.org>(accessed: May 4, 2026).

39 U.S. Embassy Malaysia,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February 4, 2026, <https://my.usembassy.gov/2026-critical-minerals-ministerial/>(accessed: May 2, 2026)

- 가격·무역·투자 정책을 동맹국·파트너국과 함께 공동 조율하는 다자 협력체로 역대 최대 규모의 광물 연합을 구성
 - ※ 55개 파트너(54개국 + EU)가 참여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블록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 약화, 다변화·안정성 확보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자립 체계 구축
 - 2022년 출범한 MSP가 단순한 자원 확보 협력 틀이라면 FORGE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희토류·리튬·코발트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
 - 또한, FORGE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로 FORGE 참여국들에는 유리한 조건의 관세, 통상 적용과 시장 가격의 기준 설정으로 공급망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 FORGE의 핵심 내용은 첫째,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약화시키고 가격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시장 안전장치 도입(가격 하한선)·오프테이크 계약·보조금 등을 통해 안정성 확보
 -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설정하고, 가격 폭락 시 미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Price Floor) 도입 등 동맹국과의 공동 시장 전략을 강화하려는 목적⁴⁰
 -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막기 위해 광물별 기준 가격(reference prices)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입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조정 관세를 부과해 동맹 내 공급망의 가격 경쟁력 보호, 관세 혜택과 원활한 통관 보장
- 둘째, 공급망 전 주기 다변화
 - 채굴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이 80% 이상 독점하고 있는 광물의 정제·가공(Refining) 및 부품 제조 단계까지 동맹국 내에서 해결하는 무역 구조를 지향
- 셋째, 민간 투자 촉진 및 리스크 완화
 - 다자간 공동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의 광산 개발 및 가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상쇄

40 Reed Blakemore and Alexis Harmon, “US critical minerals policy goes collaborative with FORGE,” Atlantic Council, February 12,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us-critical-minerals-policy-goes-collaborative-with-forge/>(accessed: May 7, 2026)

- 미국 정부는 6개월간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대출·지원 형태로 동원
 - ‘Project Vault’ 프로그램을 통해 120억 달러 규모의 광물 비축 및 금융 지원 확보
 - 정부-기업 간 연결을 촉진해 공급망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
 -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우크라이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지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및 협력 확대⁴¹

- (진척 상황) FORGE는 2026년 5월 현재, 기본 연합 구성을 마치고 실질적인 실행 규범과 프로젝트 선정을 조율하는 구체화 단계⁴²
 - 가격 하한제 및 관세 연동 메커니즘 구체화 협상 진행 : 각 회원국 통상·원자재 담당 부처들이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품목별 가격 하한선 가이드라인과 중국산 덤핑 광물에 적용할 관세율 비중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
 - 글로벌 광산 및 정제 인프라 프로젝트 스크리닝 : 미 수출입은행(EXIM)의 ‘프로젝트 볼트’ 등과 연계하여, 탈중국 공급망 허브가 될 수 있는 다자간 공동 투자 후보 자산(광산 및 가공 공장)을 선별하는 실사 작업 진행⁴³
 - 미국은 EU·일본과 국경조정 가격 기준 및 공동 투자 기회 발굴에 합의⁴⁴
 - ※ 미국은 아르헨티나·모로코·페루·필리핀·UAE·영국 등과 11건의 새로운 양자 협정 체결, 총 21건으로 확대⁴⁵

- 한국은 FORGE의 첫 의장국으로 지정되어 오는 6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공동 투자 비즈니스 모델(프로젝트) 발굴을 주도

41 U.S. Embassy Malaysia,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February 4, 2026, <https://my.usembassy.gov/2026-critical-minerals-ministerial/>(accessed: May 2, 2026)

42 Erica Westenberg Thomas Scurfield Charlotte Boyer, “US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Raises New Prospects—and Questions—for Developing Producers,”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February 4, 2026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us-critical-minerals-ministerial-raises-new-prospects-and-questions-developing-producers>(accessed: May 7, 2026)

43 Erica Westenberg Thomas Scurfield Charlotte Boyer, “US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Raises New Prospects—and Questions—for Developing Producers,”

44 Ibid.

45 Reed Blakemore and Alexis Harmon, “US critical minerals policy goes collaborative with FORGE,” Atlantic Council, February 12,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us-critical-minerals-policy-goes-collaborative-with-forge/>(accessed: May 7, 2026)

- (기대효과) 첨단산업 필수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장기적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블록 형성
 -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인 광물 채굴·정제 프로젝트 보호
 - 협력 자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미국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공급망 재편을 실현

- (도전 과제) FORGE는 미국 중심의 양자 협력 체계를 넘어 다자간 공동 행동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평가되지만 첫째, 일부 국가는 미국의 주도권 강화에 신중한 태도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그린란드 관련 등)이 신뢰 저하 등 외교적 리스크로 지적

- 둘째, 참여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 범위 제한
 - 54개 참여국의 정치·경제발전 수준이 달라 실제로 구속력 있는 규칙에 대한 합의 도출과 실행 가능성에 리스크 상존
 - 외교적 불협화음이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

- 셋째, 장기적으로는 실행력·지속성·정치적 합의가 관건
 - 광물협정과 MOU가 실제 광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가격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 신뢰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정책 지속성과 참여국의 선거 주기 사이의 긴장 우려

V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1. 시사점

- 첨단기술 및 신산업의 수요 증가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시장의 효율성보다 지정학 경쟁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
- 블록 간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은 첫째, ‘원광’에서 ‘정·제련(Processing)’ 중심으로 갈등이 이동할 전망
 - 현재 글로벌 자원 전쟁은 광산을 누가 가졌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90% 독점한 가공(정·제련) 기술을 어떻게 대체하는가”의 싸움
 - 미국은 광물 비축뿐만 아니라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정제·가공(Refining) 및 영구자석 제조 단계의 인프라를 미국 및 동맹국 내에 구축하는 것이 장기 전략
- 둘째, 시장 메커니즘의 정치화
 - 트럼프 2기는 보조금 대신 관세와 최저가격 보장(FORGE)이라는 강제 수단을 써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결정권 장악 시도
 - 그러나, 반가공 구리 제품에 50% 관세 부과는 실제 취약한 제련·정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동차·건설 등 downstream 산업 비용의 상승 초래⁴⁶
 - 잘못된 정책 도구 사용은 공급망 회복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보호와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는 단순 관세보다 맞춤형 인프라·투자·시장 안정화 도구가 필요⁴⁷
- 셋째,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전략은 단기적 속도와 야심을 보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행력·지속성·정치적 합의가 관건
 - FORG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탈중국 안보 전략을 넘어 생산국의 실질적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버넌스가 필수적

⁴⁶ Alexis Harmon and Reed Blakemore, “A tale of two supply chains: Comparing Trump’s new copper tariffs and rare earth investments,” Atlantic Council, August 5,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ale-of-two-supply-chains-comparing-trumps-new-copper-tariffs-and-rare-earth-investments/>(accessed: May 7, 2026)

⁴⁷ “Trump says no critical minerals tariffs for now, will seek overseas supplies,” Reuters, January 14, 2026(accessed: May 7, 2026)

- 또한, 중국산 저가 물량의 공세 차단을 위한 인위적 가격 통제가 유발할 수 있는 시장 왜곡, 초과 공급과 막대한 재고 비용 부담 등으로 다자간의 정교한 정책 조정 필요
- 넷째, 미국 주도의 'FORGE' 포럼 출범은 개발도상국에 안정적 투자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및 자율성 축소라는 위험성을 내포
- 마지막으로, 각국에 제안된 광물 거래 클럽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배제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한국에도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
 - (기회 요인)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소재 역량을 강점으로 미국 공급망 블록 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
 - 미국 내 투자·생산 거점 확대 시 세제 혜택·지원 수혜, 아프리카·남미 자원 외교 참여 기회 확대
 - (위기 요인) 미국의 규율 강화로 원산지 규정·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중국 시장 의존 산업 압박 심화 등 '비용 상승 및 대중 관계 악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내포

2. 한국의 대응 과제

■ 한국형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구축 필요

- 공급망 경쟁이 단순 자원 확보를 넘어 기술·규범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블록화 동참과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사이에서 전략적 방향성 설정 필요
 -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에 참여하면서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등 제3 공급망 축을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적 외교를 추구할 필요
 - 중국의 희토류 역외 수출통제(공급 차단)와 원산지를 규제하는 미국의 FEOC 규제(수요 차단) 사이에서 한국은 '가격 하한제' 유연화와 현지 공동 정련 기지 구축 조기화 등 FORGE 다자 연합을 적극 활용
 - ※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하고 호주·캐나다산 광물로 대체하려 할 경우, 중국은 한국향 희토류 수출 물량을 고의로 지연·통제하거나 공급 중단 등 '보복 리스크' 노출 우려
 -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고도화하고, 산업별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구축과 단계별 로드맵 추진
 - ※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관리 → 자원 외교·산업 경쟁력 강화 → 기술 자립·규범 선도라는 3단계 로드맵을 추진

■ ‘한국형 광물안보파트너십(K-MSP)’ 구축

- ※ 한국은 기존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와 트럼프 2기 전면 재편된 ‘FORGE’의 초대 의장국(2026년 6월 임기 만료 예정)으로 활동한 명분과 협상력 보유
- 한국의 독보적인 정련 기술과 글로벌 배터리 3사 및 반도체 생태계를 보유한 대규모 수요처로서의 바이어 클럽(Buyer’s Club) 지위는 강점
- 한국이 주도하는 K-MSP는 ‘기술-금융-수요 패키지’를 자원국에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로 구축될 가능성
- 자원보유 맞춤형 양자·다자 ‘K-MSP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 한국형 제련·가공 공장 기지 벨트화, 인프라-자원 패키지 딜 등을 고려하되 정부 예산 및 공적 금융 확대, 자원 외교의 연속성 확보

■ 국내 자립 및 다변화

■ 수입선 다변화의 제도적 강제

- 미국의 강력한 탈중국 압박(FEOC 규정 강화 및 관세 폭탄)으로 인해,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광물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
-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배터리·소재) 리스크 평가 및 단기 대체 공급선 확보
 - ※ 한국은 특정 국가에 80% 이상 의존하는 핵심광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2030년까지 의존도를 50%대로 낮출 계획

■ 자원안보 인프라 확충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실시예 발맞추어, 미국 ‘프로젝트 볼트’와 유사한 민관 합작 형태의 핵심광물 국가 비축 일수 및 비축량을 선제적으로 확대
 - ※ 정부는 예산 증액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을 통해 리튬은 기존 수일 분량에서 30일분 이상, 희토류는 최대 1년 6개월분까지 물리적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⁴⁸
- 공공·민간 공동 비축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재자원화 기술 국산화

- 국내 배터리·반도체 스크랩 및 폐배터리에서 고순도 리튬, 니켈, 흑연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재자원화)’ 생태계에 정부 보조금을 집중 투자해 핵심 원료의 국내 자급률 제고, 폐기물 재자원화 규제 철폐

48 Yu Jun-ho and Yoon Yeon-hae, “Korea’s dependence on China for key minerals rises in 2024: Data,” Pulse, 6 January, 2025, <https://pulse.mk.co.kr/news/english/11210529>(accessed: May 7, 2026)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FEOC 규정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2030년 예정인 도시광산(재자원화)의 법제화를 가속 필요

■ 미국과의 양자 협력

■ 한미 핵심광물 워킹그룹 정례화를 통해 미국 내 정제·가공 인프라 공동 투자 등 논의

-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정제·가공(Refining) 및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미국 영토 내에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이 공동 설립하는 형태의 '윈-윈(Win-Win)' 모델을 제시할 필요
- 미국 내 핵심광물 규제 완화(NEPA 가이드라인) 조치로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만큼 미 '프로젝트 볼트' 자금과 연계한 북미 현지 정제·가공 합작법인(JV) 설립 촉진
 - ※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소재사들이 합작법인(JV) 형태로 북미 리튬·니켈 광산 및 제련소 개발 프로젝트 참여중
- 그러나, 미국 내수 기업(MP 머티리얼스 등)과의 경쟁 심화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단독 자원 개발 추진시 미국 기업 대비 세제 혜택이나 연방 토지 분배 등에서 차별, 환경·사회적 갈등(ESG) 책임 전가 우려

■ 금융 가용성 확보

- 미 수출입은행(EXIM)의 장기 신용공여 및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기업이 북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초기 자본 리스크를 대폭 완화

■ 동맹 격상 논리 개발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실적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및 인센티브 혜택 대상국(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보장

■ 다자 협의체 FORGE 활용

■ 초기 주도권 및 룰 세팅(Rule-setting) 참여

- 한국은 FORGE의 초대 의장국(2026년 6월 임기 만료 예정)으로서 임기 막바지까지 중국산 저가 광물의 시장 교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유리한 공급망 규칙을 반영
- 핵심광물 재자원화(Recycling) 기술 및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체계의 FORGE 표준화를 제안, 다자간 공동 투자(Club-deal) 금융 플랫폼 구축, FORGE 핵심광물 공급망 데이터 공유 체계 및 친환경 정련 ESG 인증 표준 수립 등을 주도

- ※ 한국은 최고 수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보유해 '핵심광물 재자원화(Recycling) 글로벌 표준화'시 글로벌 공급망 내 지배력 확보 가능
- 한국이 데이터 및 ESG 표준 수립을 주도해 공식 규범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위상이 공고화되는 등 유무상의 공급망 지배력 확보 가능
- 가격 하한제(Price Floor) 리스크 방어
 - FORGE가 추진하는 광물 최소 가격 가이드라인이 국내 주요 기업(배터리 3사 등)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관세 면제 혜택 등 보상 체계 연동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
 - FORGE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가격 하한제(Price Floor) 연동 상생형 관세 혜택이나 세액 공제 설계를 주도해 원가 상승 압박을 다자간 무역 인센티브로 상쇄하고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차단
- 다자간 공동 투자(Club-deal) 금융 플랫폼 구축과 투자 지분 확보
 - FORGE 의장국 지위를 활용한 중국산 대체 광물 공급처 다변화 및 우리 기업 편익 극대화
 - 미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볼트' 자금, 미 개발금융공사 자금과 한국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매칭한 다자간 공동 투자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광산·제련소에 공동 투자하는 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 FORGE 소속 55개국에 실사 중인 호주, 캐나다, 중남미 등의 탈중국 광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광해광업공단 및 민간 기업이 공동 지분 참여(Off-take 계약 포함) 시 다자간 금융 허브를 적극 활용
- 단순한 광물 구매국(Buyer) 지위를 넘어, 호주·캐나다 등 핵심 자원국과의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여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
 - 한국의 높은 제련 기술력과 공적 금융(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을 결합하여, 호주·캐나다 현지에서 '한-자원국 공동 정련·가공 허브'를 구축
 - ※ 한국은 캐나다 정부와 전기차(EV) 제조 기회 및 수소 공급망 확대를 연계한 양해각서(MOU) 체결
 - 단순 자원 확보가 아니라 상호 윈윈(이익·역량 구축 등)을 강조해야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되므로 ESG·기술 협력·인력양성을 결합한 광물투자 패키지 딜(Package Deal) 마련 필요

참고문헌

- 김경숙,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692호(2025. 5.26).
- 김경숙·홍건식, “미국-일본-호주 3각 핵심광물 협력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770호(2025.12.8).
- 김나운, “美, 핵심광물 목록에 구리·칼륨·실리콘 등 추가,” The GURU, 2025년 8월 26일,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90972>; 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94&utm_(accessed: May 6, 2026)
- 김원철, “미국 주도 ‘핵심광물 무역블록’ 시동…중국 저가 공세 차단,” 한계레신문, 2026년 2월 5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3400.html>(검색일: 2026년 2월 6일)
- 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
- 신다윗, “경제안보와 국방(III):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과 안보적 시사점,” KIDA 안보전략 포커스, 제26-15호 (2026년 2월 11일)
- SunSirs, 트럼프의 핵심광물 2. 0 전략의 첫 해에 대한 리뷰, February 24, 2026, https://www.sunsirs.com/kr/detail_news-30721.html(accessed: May 17, 2026)
- Alexis Harmon and Reed Blakemore, “A tale of two supply chains: Comparing Trump’s new copper tariffs and rare earth investments,” Atlantic Council, August 5,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ale-of-two-supply-chains-comparing-trumps-new-copper-tariffs-and-rare-earth-investments/>(accessed: May 10, 2026)
-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AI Race, CFR, 2025(accessed: May 1, 2026)
- Erica Westenberg Thomas Scurfield Charlotte Boyer, “US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Raises New Prospects—and Questions—for Developing Producers,”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February 4, 2026 <https://resourcegovernance.org/articles/us-critical-minerals-ministerial-raises-new-prospects-and-questions-developing-producers>(accessed: May 7, 2026)
- Ernest Scheyder and Kanishka Singh, “Trump says no critical minerals tariffs for now, will seek overseas supplies,” Reuters. January 15, 202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says-no-critical-minerals-tariffs-now-will-look-overseas-supplies>

- supplies-2026-01-14/ (accessed: May 7, 2026)
- Executive Order 14213—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February 14, 2025,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executive-order-14213-establishing-the-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accessed: May 7, 2026)
-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 Approves Project Vault Loan to Launch America’s Strategic Critical Minerals Reserve and Support Manufacturing Jobs, February 2, 2026; <https://www.exim.gov/news/project-vault>(accessed: May 7, 2026)
-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House Votes to Establish American Mineral Dominance, February 4,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589>(accessed: May 6, 2026)
-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Powering the 21st Century with American Copper, Press Release, April 29,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28>(accessed: May 6, 2026)
-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President Trump Signs Legislation to Overturn Minnesota Mining Ban, Press Release, April 28,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26>(accessed: May 7, 2026)
- Hous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Senate Passes Legislation to Unleash Mineral Resources, April 16, 2026, <https://naturalresour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8711>(accessed: May 7, 2026)
- Michael From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a Critical Chokepoint on Minerals,” CFR, October 17, 2025, <https://www.cfr.org/articles/china-united-states-and-critical-chokepoint-minerals>(accessed: May 7, 2026)
- Pippa Stevens, Spencer Kimball, “Trump Project Vault stockpile will include any minerals listed as ‘critical’ by Interior Department,” CNBC, February 3, 2026; <https://www.cnbc.com/2026/02/03/trump-stockpile-critical-minerals-reserve-project-vault.html>(accessed: May 7, 2026)
- Reed Blakemore and Alexis Harmon, “US critical minerals policy goes collaborative with FORGE,” Atlantic Council, February 12,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us-critical-minerals-policy-goes-collaborative-with-forge/>(accessed: May 7, 2026)

- STR Trade Report. (n.d.). Section 232 investigation: Critical minerals
- The White House, Briefings & Statement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accessed: April 27, 2026).
- U.S. Embassy Malaysia,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February 4, 2026, <https://my.usembassy.gov/2026-critical-minerals-ministerial/>(accessed: May 2, 2026)
- U.S. Geological Survey, About the 2025 List of Critical Minerals, November 6, 2025, <https://www.usgs.gov/programs/mineral-resources-program/science/about-2025-list-critical-minerals#FAQ>(accessed: May 6, 2026)
- USTR, European Commission - United States of America - Japan, Joint Press Statement, February 4, 202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Joint%20Press%20Statement%20-%204%20February%202026.pdf>; (accessed: May 2, 2026)
- Yu Jun-ho and Yoon Yeon-hae, “Korea’s dependence on China for key minerals rises in 2024: Data,” Pluse, 6 January, 2025, <https://pulse.mk.co.kr/news/english/11210529>(accessed: May 7, 2026)
- “Trump says no critical minerals tariffs for now, will seek overseas supplies,” Reuters, January 14, 2026(accessed: May 7, 2026)
- 2021H.R.3684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117th Congress(2021-2022).

Abstract

The Realignment of the U.S.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under Trump 2.0 and South Korea's Strategic Tasks

Kyoung-sook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prioritized decoupling critical minerals from China and localizing a US-centric supply chain. This strategy is driven by a three-pronged approach: achieving domestic self-sufficiency ('Project Vault'), differentiating bilateral cooperation, and launching a mega-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FORGE'). Through these pillars, the administration is simultaneously implementing deregulation, strict trade barriers, and multilateral trade blocs. Specifically, the administration expanded its critical minerals list from 50 to 60 species and subdivided risk levels into three tiers, while pursuing legislation for long-term institutional stability. The \$12 billion public-private 'Project Vault' initiative counters Chinese resource weaponization by prioritizing investments to preemptively purchase essential minerals and maintain a constant 60-day stockpile.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acts as a 'Market Maker' by imposing import restrictions and high tariffs on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PCMDPs) from countries of concern, while establishing price floors to protect domestic investor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S. leverages 'transactional bilateralism' to forge an advanced technology alliance called 'Pax Silica' and aims to establish a 'Preferential Trade Zone' through the FORGE framework. This combined strategy counters unfair practices like price dumping via market safety nets, off-take agreements, and subsidies, while enhancing supply chain resilience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trusted nations. For this strategy to succeed, execution, continuity, and political consensus are paramount. However, some nations remain cautious of U.S. dominance, and conflicting interests may limit the scope of consensus. A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shift from

market efficiency toward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from 'raw ores' to 'processing and refining,'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increasing politicization of market mechanisms driven by the United States.

This blocization of supply chains presents both a profound challenge and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South Korea. As supply chain competition expands beyond mere resource procurement into a complex race over technology and regulatory standards, South Korea must urgently address several critical strategic tasks. First and foremost, the nation needs to establish a tailored Korean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strategy. Thi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by actively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Mineral Security Partnership (K–MSP), which serves as a mutually beneficial model designed to deliver a comprehensive package combining technology, finance, and guaranteed demand to resource–rich countries. Along with this outward strategy, South Korea must simultaneously secure domestic self–sufficiency and diversify its supply chains. In close alignmen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the country needs to expand its national resource security infrastructure and aggressively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recycling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Furthermore, institutionalizing bilateral cooperation is vital, meaning that the Korea–US Critical Minerals Working Group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regular, permanent body to strengthen collaboration, particularly through joint investments in refining and processing infrastructure within the United States. Finally, South Korea must strategically leverage its geopolitical position as the inaugural chair of the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known as FORG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itial rule–setting processes from the very beginning, South Korea can ensure that global supply chain standards and rules favorable to its domestic industries are reflected, thereby successfully securing long–term leverage and dominance within the evolving global supply chain.

Keywords: Trump 2.0, Project Vault(Critical Mineral Stockpiling Project), FORGE(Framework for Overseas Resource Governance and Energy), Preferential Trade Zone, Market Maker, The weaponization of critical minerals, K–MSP(Korea–Mineral Security Partnership)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94